

출장 결과 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새만금 농업지역 내 농업공원 기본구상을 위한 일본의 농업
공원 벤치마킹
2. 출장목적:
 - 일본의 농업공원 조성 목적과 건립과정 조사
 - 농업공원 운영 조직의 구조와 기능 조사
 - 농업공원 경영 실태 조사
 - 내방객 및 지역주민의 농업공원 이용 실태
3. 출장지역: 야마나시현(山梨縣) 호쿠도시(北杜市), 카츠누마정(勝沼町),
나가노현(長野縣) 시오지리시(塩尻市), 이나시(伊那市)
4. 출장기간: 2008. 5. 28(수) ~ 5. 31(토), 3박4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농촌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정섭
농업경영·구조연구센터	초청연구원	김창호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5. 28(수)	18:00 도쿄 니시이테츠인신주쿠 호텔 도착	
	19:30 연구협의회 - 일본 농업공원의 사회적 배경	동경농공대 센가 교수 외 6명
5. 29(목)	07:00 이동(도쿄→야마나시현 호쿠도시)	
	10:00 야마나시현 호쿠도시 소재 ‘3대 교사(校舎)의 마을’ 도착, 면담 조사	
	14:00 이동(호쿠도시→카츠누마정)	
	15:30~18:00 카츠누마정 소재 ‘포도의 언덕’ 도착, 면담 조사	

5. 30(금)	08:00 이동(카츠누마정→나가노현 시오지리시)	
	10:30 시오지리시 소재 '찌로루의 숲' 도착, 면담 조사	
	13:00 이동(시오지리시→이나시)	
	14:30 '미하라시 농업공원' 도착, 면담 조사	
	17:00 이동(이나시→도쿄)	
5. 31(토)	07:00 이동(도쿄→서울)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방문지
동경농공대	교 수	센가 유타로 (千賀 裕太郎)	042-367-5758	
	조 교	오사토 다카야시 (大里耕司)	042-366-4458	
야마나시현 중북농무사무소 지리농정과	농정담당 부주사	아사카와 카츠키 (浅川一輝)	0551-23-3078	3대 교사의 마을
야마나시현 동부농무사무소 농업기반과	제1담당 부사	우찌야마 유고레 (内山裕之)	0554-45-7828	
카츠누마정 '포도의 언덕'	사업관리자	사야 고우세이 (佐野光成)	0553-44-2111	포도의 언덕
이나시 경제사업부 농림과	과장	메이찌 미무라 (三村明一)	0263-52-0280	찌로루의 숲
	농정계장	리야우다쿠 쇼미 (柳澤昭夫)	0263-52-0280	
찌로루의 숲	과장	헨코우 고우이찌 (片岡宏一)	0263-51-8100	
이나시 농림진흥과	농업공원계장	호쿠린 타이 (北林太)	0265-74-1807	미하라시 농업공원

II. 주요 출장 결과

[5월 29일, 목]

1. '3대 교사의 마을(三代校舎ふれあいの里)'

- '3대 교사의 마을'은 메이지(明治), 다이쇼우(大正), 쇼와(昭和) 시대¹⁾ 각각의 학교 건물이 한 장소에 나란히 남아 있는 마을의 역사적 건축유산을 복원하고 농촌체험관광에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세 시대의 학교 건축물이 나란히 보존되어 있는 장소로는 일본에서도 이곳이 유일하다.
-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 마을이 속한 슈요쿠정(須玉町) 지역의 학교들이 통합되거나 폐교되었다. 이 무렵, 지역 주민들은 세 개의 학교 건물을 활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학교 건물을 복원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 메이지시대의 학교 건물은 현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역사자료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공식 명칭은 '슈요쿠정 역사자료관'이다. 이 역사자료관의 1층은 작은 카페로, 2층은 메이지시대의 교육 관련 자료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문화재 관련 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복원했다. 시설의 관리는 지역의 NPO인 '문화자원협회'가 맡고 있다. 이 건물은 일본의 건축기술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미가 크다. 메이지 8년(1876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당시에 유행하던 서양풍의 건축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야마나시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메이지시대의 학교 건축물이다.

1) 메이지시대는 1868~1912년, 다이쇼우시대는 1912~1926년, 쇼와시대는 1926~1989년이다.



▶ 종합교류촉진시설,
‘맛있는 학교’
- 쇼와시대의 학교 건물



▶ 농업체험농원시설,
‘대정관’
- 다이쇼우시대 학교 건물



▶ 슈교쿠정 역사자료관
- 메이지시대의 학교 건물

- 다이쇼우시대의 학교 건물은 농업체험농원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공식 명칭은 ‘농업체험농원시설 대정관’이다. ‘중산간지역 농촌활성화 종합정비사업’의 보조금을 갖고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학교 인근의 다섯 개 마을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각 마을마다 관리위원들이 선정되어 있다. 2007년부터는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²⁾.

- 모내기 체험
- 벼 수확 체험
- 채소가꾸기 체험
- 메밀 소바 만들어 먹기 체험
- 공예품 만들기 체험



▶ 대정관 내부의 ‘메밀 소바 만들어먹기’
체험 교실

- 쇼와시대의 학교 건물은 숙박이 가능한 도농교류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식명칭은 ‘종합교류촉진시설 「맛있는 학교」’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특산물 매장,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레스토랑, 공예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방, 온천, 숙박시설 등이 있다. 제3섹터 방식으로 창립한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 지분의 1/2은 기업체가, 나머지 1/2은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산촌진흥 특별대책사업’의 보조금이 투입되었다. 대정시대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지정관

2)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과 요금 등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맛있는 학교' 안에 마련된 지역 농특산물 직판 매장

표 1. '3대 교사의 마을' 주요 시설 현황

구분	메이지시대 학교	다이쇼우시대 학교	쇼와시대 학교
건축물 연면적	519㎡	722㎡	1,433㎡
투입한 사업비	1억 2000만 엔	1억 8270만 엔 (중앙정부 55%, 지자체 30%, 자부담 15%)	4억 3950만 엔 (중앙정부 50%, 지자체 50%)
개관(개업) 시기	1991년 4월	1999년 4월	2000년 5월
방문객 수(명, 2003년 기준)	1만 232명	1만 5764명	13만 8121명

- 이곳을 찾아오는 방문객 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9년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 2003년에는 약 1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특별한 홍보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입소문을 통해 이곳이 알려져 도농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 학교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매출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총2억 엔을 넘어섰다.
- 세 개의 학교 건물을 각기 다른 운영 주체들이 각기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세 개의 시설을 통괄 관리하는 조직은 없다. 이러한 운영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은,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게 된 시기가 다르고, 그때마다 사업 내용을 달리하여 그것에 맞게 운영조직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 '3대 교사의 마을'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80%가 초중등학교 학생들이다.

이들은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 즉, 이동교실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열정을 갖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학교 건물을 보존할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낳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고 다이쇼우시대 학교에서의 체험프로그램 진행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고용이 창출된 것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2. '포도의 언덕(ぶどうの丘)'

- '포도의 언덕'은 포도와 와인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이미지를 가꾸어 온 카츠누마정에서 농촌관광의 중심을 차지하는 시설이다. 1976년 카츠누마정에서 농촌관광 진흥을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어 조성한 관광시설이다. 당시 와인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면서 주민복지를 위해 이 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다. 와인 판매장, 와인 저장고, 온천탕, 호텔, 레스토랑 등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 1970년대 중반 일본 농림성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국적으로 120여 개의 농촌관광시설이 조성된 바 있다. '포도의 언덕' 또한 이때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건립된 농촌관광시설들은 대부분 골프장 등 다른 용도의 레저시설로 바뀌었다. 본래의 취지대로 농촌관광 활동을 수행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하는 '포도의 언덕'은 여전히 지역의 주요 농특산품인 포도와 와인을 테마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관계자들은 이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 카츠누마정에서는 연간 1만 3,000kl의 와인이 생산된다. 이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50%에 해당된다. 이처럼 와인의 주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카츠누마정의 역사를 떼어 놓고서는, '포도의 언덕'이 성공적인 농촌관광 거점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 ‘포도의 언덕’에서 내려다 본 카츠누마정의 포도재배지역 전경

카츠누마정은 코후 분지 동쪽에 위치한 야마나시현에 속한다. 도쿄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일본철도(JR)을 이용하면, 도쿄 중심에서부터 약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다. 1992년에 ‘카츠누마역’을 ‘카츠누마 포도 고향역’으로 개칭했는데, 일본의 철도역 중 지역특산 과일 이름이 들어간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는 점에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포도 재배가 성한 곳이다.

카츠누마정에서 포도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약 130년 전이다. 이 고장 출신 청년들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포도 재배법과 와인 제조법을 배워 왔고, 그 후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양조용 포도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결국, 새로운 품종인 코슈종이 개발되고 보급됨으로써, 카츠누마정의 와인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재 카츠누마정에는 31개의 와인 양조업체가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코슈 포도 재배면적은 171ha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와인 원료의 80% 이상이 외국산 원료(1차 파쇄한 포도즙 형태)이다. 그런데 카츠누마정의 와인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지역산 원료를 사용한다. 지역의 포도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것이다. 카츠누마정의 농경지 대부분은 포도밭이며, 곳곳에 자리 잡은 포도와 와인을 테마로 한 관광시설들이 이 지역 와인산업의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다.

- 한 해 동안 카츠누마정을 찾는 관광객 수는 약 20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50만 명 정도가 이곳 ‘포도의 언덕’을 방문한다. 1975년 설립 첫 해의 매출액은 5000만 엔이었다. 현재 ‘포도의 언덕’의 연간 매출액은 10억 엔 정도이다. 그 중 5억 엔은 와인 등 기념품 판매액이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호텔과 레스토랑 경영 수입이다.
- 카츠누마정 31개 와인 양조업체에서 생산한 와인들만을 대상으로 품

질을 심사하여 약 180 종의 와인을 전시·판매한다.

- ‘포도의 언덕’은 건실한 경영을 계속해 오면서 그 규모를 꾸준히 확충했다. 처음에는 시설 연면적이 0.8ha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ha에 달한다. 근무하는 종사자 수 또한, 파트타임 근무자를 포함하여, 100여 명 정도로 늘어났다. 영업이익과 공공부문 보조금으로 토지와 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 예를 들어, 호텔을 짓는 데에는 모두 5억 엔 정도가 들었는데, 그린투어리즘 보조금(90%)과 영업이익금(10%)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온천을 개발하는 데에도 역시 5억 엔이 들었다. 그중 60%는 보조금이었고 40%는 호텔 영업이익금이었다.
- ‘포도의 언덕’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야마나시현에는 지역의 포도·와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섯 명의 ‘포도농가 사업관리자’라는 직책을 분야별로 책임을 맡게 하고 있다. ‘포도의 언덕’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야 고우세이씨도 포도농가 사업관리자이다. 포도농가사업 관리자의 임기는 4년이며, 60세가 정년이다. 사업관리자는 공무원 신분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 소유권과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갖고 있으며 초기부터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에서, 경영책임자인 사야 고우세이씨는 ‘포도의 언덕’이 흑자 경영을 달성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설명한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상품과 서비스의 원자재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 원칙은 ‘지역의 발전이 이 시설의 발전과 연결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포도의 언덕’이 오랜 기간 동안에도 단일한 이미지를 갖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오직 ‘포도’만을 주제로 하여 일관된 경영을 함으로써, 확고한 이미지를 갖추게 되었다.
 - 경영자로서 종업원에 대해 항상 존경심을 갖는다.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 방문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통해, 재방문 고객을 확보하고 입소문에 의한 홍보 전략을 실천한다.



▶ 와인매장 및 레스토랑



▶ 와인매장 내부



▶ '포도의 언덕' 호텔

[5월 30일, 금]

3. '찌로루의 숲(チロルの林)' 농업공원

- 나고야현 시오지리시에 위치한 '찌로루의 숲'은 전체 부지가 약 72ha의 면적에 시설 도입면적만 28ha에 달하는 큰 규모의 농업공원이다. 1999년에 개관한 이후로 매년 적게는 15만 명에서 많게는 45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곳이다.
- 찌로루의 숲을 개관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1989년 10월에 '신주(信州)리조트'라는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회사는 1997년에 농업공원사업을 구상하여 발표했다. 그 다음해인 1998년 5월에 '농업공원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을 시오지리시와 조인했고, 11월에 농업공원조성 공사가 시작되었다. 1999년에 시오지리시와 신주리조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기업인 '(주)신주팜'이 설립되었다. 2000년에 드디어 '신주시오지리농업공원 찌로루의 숲'을 개장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목표 방문객 수는 연간 30만 명 정도로 정했다. 2001년부터는 제2차개발이 진행되어 허브농원, 산채밭, 버섯농원 등이 마련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이러한 '찌로루의 숲 농업공원' 개발과정은 시오지리시의 '제3차총합계획(1991~2005년 동안의 장기계획)'과의 관련성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시오지리시는 이 계획을 통해 "생활문화가 무르익은 전원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낭만과 활력이 있는 쾌적한 도시만들기'라는 정책기조를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한 시책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 풍요로운 인간성 창조를 위한 교육환경 만들기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 만들기
- **특성을 살려 활력이 넘치는 산업 만들기**
- 생기 넘치고 사려깊은 복지사회 만들기
- 21세기를 전망하는 종합적 행정운영체제 만들기

○ ‘찌로루의 숲’은 위의 정책분야 중에서도 산업 분야와 관련된다. 산업분야의 정책들은 다시 6개 분야로 세분되는데, 그중 하나가 ‘농업관광통합형산업 실현’이다. 이런 정책 계획 하에 시오지리시는 자연스럽게 농업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미 민간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신주리조트’사와 알게 되어 협력하기에 이른 것이다.

○ 찌로루의 숲 농업공원 토지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공원구역면적: 72ha(매수지 33ha, 임차지 39ha)
- 내부개발면적 28ha
 - 토지이용: 임야(23.6ha), 농지(4.1ha)
- 토지매수에 따른 용지보상비 5억 1932만 엔

○ 찌로루의 숲 농업공원 내의 시설은 제3섹터 방식으로 참여한 주체들이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설들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입장객을 예상하고 조성한 것이다.

- 농업구조개선시설: 제3섹터 회사인 (주)신주팍이 운영하고 있다. 시설 조성은 ‘경영기반확립농업구조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조성되었다.
 - 지역식재료공급시설 616.04m², 카페 및 빵·피자 하우스 134.54m²
 - 농축산물처리가공시설 332.05m²
 - 산지형성촉진시설 청공시장(농특산물직판장) 332.05m²
- 위락시설: 민간기업인 (주)팍이 운영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있다.
 - 매점, 레스토랑, 축사, 와이너리
 - 주차장 2000대 수용 4ha
 - 산채·식물원 6.3ha

- 방재조정지 2개소
- 메밀밭 1.4ha



▶ 허브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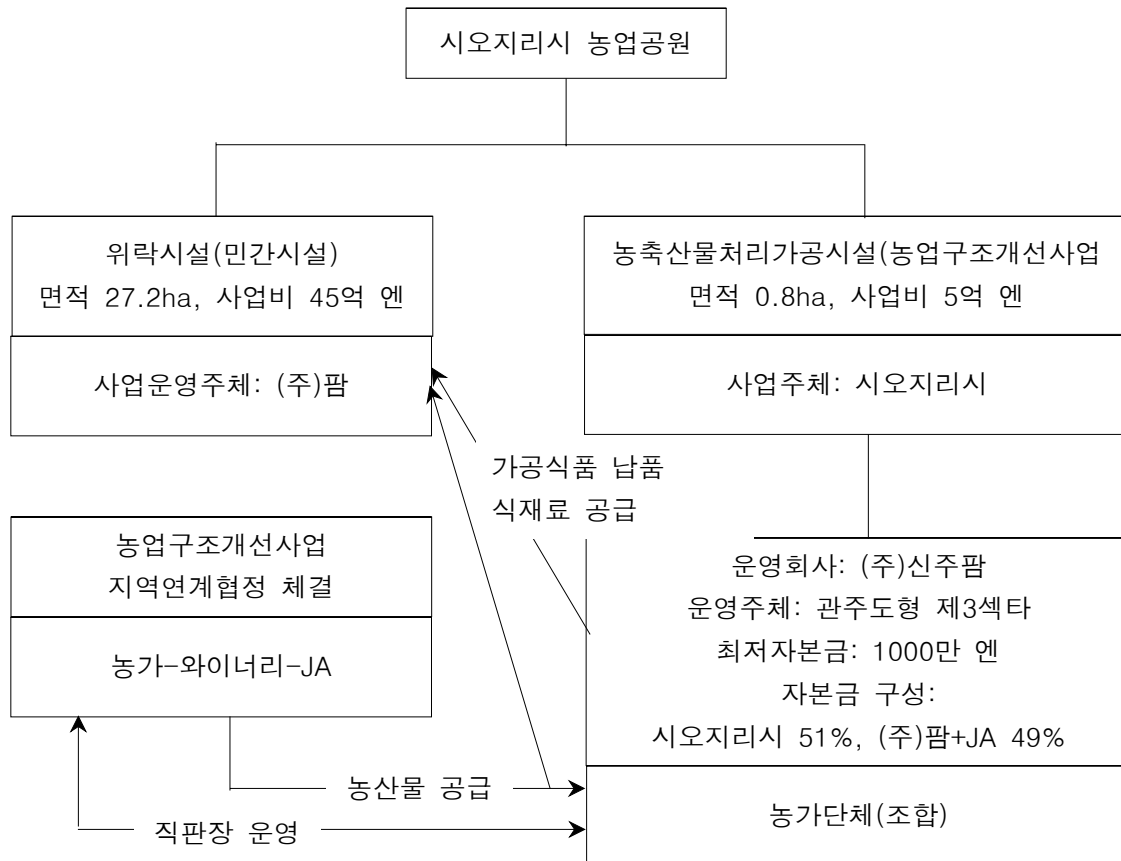
▶ 농산물직판장 입구



▶ 먹을거리 만들기 체험장

-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 농업구조개선시설(설치사업주체: 시오지리시): 5억 1291만 엔(국고 50%)
 - 제3섹터 회사 (주)신주팜 설립 자본금: 시오지리시 51%(510만 엔), 시오지리시 JA(일본농협) 24.5%, (주)팜 24.5%
 - 위탁시설(설치사업주체: 민간기업 (주)팜): 약 45억 엔
- 그밖에도 공원에 직접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이 찰로루의 숲 조성과의 연계하여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접근도로 정비: 3개 사업(시도로 확장개량사업, 시오지리시 승합선 확장개량 공사, 현도로 확장개량사업)을 투입하여 공원에 접근하는 도로 총 연장 7,201m에 대해 확포장 공사 시행. 총 사업비 60억 9882만 엔 투입.
 - 상수도 확보: 총 사업비 8496만 엔을 투입하여 일일 최대 용수공급량 1,500t을 확보
 -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1500만 엔을 투입하여 20개소에 표지판 설치
 - 송전탑 3기 이설

- 이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찰로루의 숲은 1999년에 처음 개장했을 때에는 한해 45만 명이 방문했으나, 그 이후로 방문객이 2001년에는 12만 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방문객이 급감한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레저시설을 기대하고 왔으나 '농업공원' 안에 레저시설이 별로 없음을 알고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공원 관계자는 분석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경, 나가노, 나고야 등 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공원에 접근하는 길이 산간지대를 거쳐 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눈으로 인해 접근로가 차단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결정적으로는,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시설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 결과에 따라 2007년에는 대규모 허브 밭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들었다. 라벤더만 약 2만 본을 식재한 것이다. 그 덕인지 2007년 방문객은 17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이다.

- 원래 본격적인 위탁시설을 제외한 낙농체험장, 레스토랑, 빵·피자 하우스는 지분을 갖고 있는 시오지리시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을 했었다. 그러나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시오지리시는 그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주)팜에 위탁했다. 사업 위탁의 법적 근거는 ‘지정관리자 제도’에 있다.
- 제3섹터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JA의 역할은 지역 농업인들이 찌로루의 숲 농업공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소득 기회를 갖도록 촉진하는 일이다. 그 일환으로 농업공원 내의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업인들의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농업공원 안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피자하우스 등에 지역 농업인들이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직했다. 여름철이 성수기이고 겨울철은 비수기인 찌로루의 숲 농업공원이 특히 겨울철에 주력하고 있는 가공상품 판매에도 참여하면서, 상품 원재료를 지역 농업인들이 공급하게 하고 있다.
- 다각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한 소득 기회로 활용하고자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찌로루의 숲 농업공원은 현재까지 적자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찌로루의 숲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본 전국에 있는 농업공원 또는 그 하부시설 상당수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던 시설을 민간 사업자 또는 민간 단체에 ‘지정관리자 제도’를 활용하여 경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공공부문보다는 경영 마인드와 능력을 갖춘 민간 주체에게 맡겨 적자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지정관리자 제도는 2003년에 법률이 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미하라시팜(みはらしファーム)’ 농업공원

- 이나시에 위치한 미하라시 농업공원도 일본의 농업공원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제3섹터 방식으로 조성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1999년에 개장한 이곳은 별도의 입장료가 없고, 각 시설별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설 매출 현황을 기준으로 방문객 수를 추정하면 1999년 개장년도에 7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방문객 규모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2007년에도 약 70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

- 1990년대 초반 미하라시 농업공원이 위치한 곳에 온천이 개발되면서, 인근 지역을 연계한 관광개발 구상이 지역에서 논의되었다. 당초에는 온천 바로 옆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구상이 유력했으나, 결국 농업공원을 조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 이나시와 JA 이나시 지부가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의 회사를 창립했다.
- 약 10ha의 면적에 조성된 미하라시 농업공원은 일거에 시설을 갖춘 곳이 아니다. 10여 년에 걸쳐 각종 시설들이 구상되고 운영주체가 시설별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농업공원이 조성되었다. 20여 개의 주요 시설들이 입지해 있으며, 28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숙박, 온천, 농특산물 구매 등이 가능하다³⁾.



▶ 목마장



▶ 농산물직판장 내부



▶ 도레다테 시장



▶ 공원관리사무소



▶ 딸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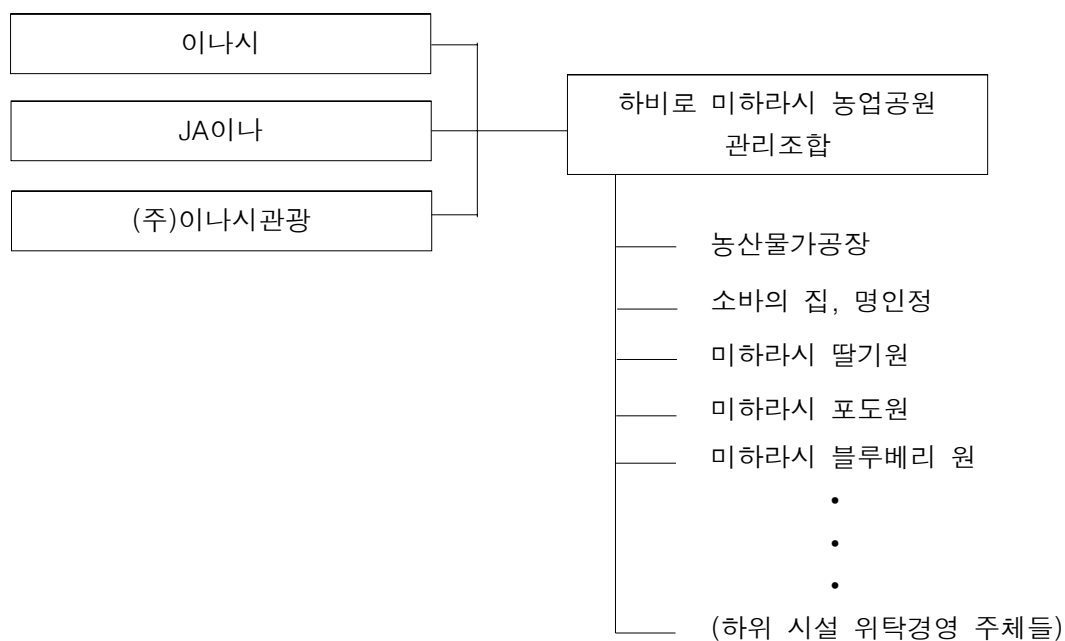


▶ 시민농원

- 이곳 시설들 중 농업체험 시설과 농산물 판매시설은 대부분 국고보조를 받아 조성되었다. 국고 보조금에 시비와 JA이나가 자금을 보태어 조성하거나 국고와 시비의 결합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만으로 조성한 시설도 있다.
- 국고는 주로 ‘지역농업기반확립 농업구조개선사업’ 자금으로부터 충당되었다.

3) 미하라시팜 농업공원의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고.

- 미하라시 농업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방식에 있다. 얼핏 보기에는 일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높은 수준의 농업인 참여가 돋보인다. 점진적으로 시설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확인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할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JA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농업인들 중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인들을 별도의 조합으로 조직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하라시 포도생산조합은 포도원을 지을 때 JA이나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결성된 조합이다.
- 지정관리자로 지정되어 각 시설을 위탁경영하는 주체들은 영업이익의 100%를 모두 취득한다. 그 중에서 일부를 시설관리비용으로 ‘미하라시 농업공원 관리조합’에 납입한다. 이 시설관리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컨대, ‘소바의 집’은 매년 400만 엔의 시설관리비를 납입한다.
- 미하라시 농업공원의 운영에 관계된 주체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미하라시농업공원은 일본농업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성공적인 농업공원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장 이후 지금까지 방문객 수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홍보 부족이라고 판단한 농업공원 측은 향후 대도시의 단체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각종 프로그램 기획서를 만들어 동경에 소재한 대형 여행사들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단체 고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5. 시사점

- 일본의 농업공원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조성되었다. 농업공원이 단지 수익을 위한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와 농촌의 진정한 교류장소가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부터 공공부문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공원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3섹터 방식의 조성 및 운영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제3섹터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 활성화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찌로루의 숲’처럼 제3섹터 방식을 취했지만 지역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농업공원의 운영은 쉽지 않다. ‘미하라시 농업공원’처럼 경제성 있는 아이템에 대해 점진적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이야말로 제3섹터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 최근에 도입한 ‘지정관리자’ 제도는 공공부문이 조성하고 운영하던 시설들의 경영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만들어 낸 제도이다. 공공부문이 직접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비효율은 농업공원의 경제적 가능성을 저해한다. 공공시설일지라도 과감하게 민간부문에 경영을 위탁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좀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 농업공원 시설 중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의 NPO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익적인 사업에서도 드러나는 주민참여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부록 1> '대정관'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인당 비용 (지도료)	체험 기간	체험 시간	동시 수용 인원	체험 지도자 수
발작물 심기	• 1구획 500㎡에서 파종 체험	500엔	5월 하순~ 6월 상순	2~3시간	100명	1구획 당 2인
논농사 체험	• 1구획 500㎡에서 수확 체험	500엔	9월 하순~ 10월 상순	2~3시간		
	• 보리, 벼 등 도정 체험 (1명당 5kg 구매)	3,000엔	봄, 가을			
새끼 꼬기	• 짚을 활용한 전통 새끼꼬기	500엔	연중	2~3시간	100명	15명당 1인
채소 가꾸기	• 1명당 20㎡에서 파종, 육묘	500엔	4~9월	2~3시간	100명	20명당 1인
	• 1명당 20㎡에서 수확	500엔	6~11월			
	• 파종 또는 수확한 채소를 택배로 배송 (품목에 따라 요금이 다름)	2,000~ 4,000엔				
지역특산식품 호우토우 만들기	• 호우토우를 만들어 식사하기 (1식탁 6인 기준) (어묵, 채소류 제공) (재료 및 시설 사용료 포함)	1,500엔	연중	2시간	6~120 명	10명당 1인
소바 만들기	• 메밀로 소바를 만들어 식사하기 (1식탁 4인 기준) (어묵, 채소류 제공) (재료 및 시설 사용료 포함)	1,500엔	연중	2시간	2~80명	10명당 1인
도예	• 다완, 화분, 그릇 등 도자기 만들기 (재료 및 시설 사용료 포함) (작품은 택배로 배송)	2,000엔	연중	2~3시간	4~35명	20명당 1인
드라이플라워 만들기	• 드라이플라워 만들기 (재료 및 시설 사용료 포함)	2,000엔	연중	2~3시간	4~40명	5명당 1인
공예	• 목공예, 점토공예, 죽세공예 등 (재료 및 시설 사용료 포함)	2,000엔	연중	1~3시간	2~80명	5명당 1인
허브조형물 만들기	• 향이 없는 고풍석에 허브추출액에 주입하여 좋아하는 형상으로 만들기 (1인당 고풍석 2개) (재료 및 시설 사용료 포함)	1,500엔	연중	2시간	100명	
시설이용	• 시설이용에 따른 요금 회의, 이벤트 장소 이용 숙박시설 이용시 상담 필요	요금표		주민	외지인	
			회의실	200엔	300엔	1인당
			이벤트	3,000엔	5,000엔	1인당
			조리실	200엔	300엔	
			숙박	2,000엔	2,000엔	

<부록 2> '미하라시팜 농업공원'의 주요 시설 개요

시설명	조성년도	사업내용	시설설치자	운영주체	비고	
하비로 여관	1975년	숙박시설	이나시	(주)이나시관광 (1997년까지는 시영)	• 1998년에 '미하라시 온천'과 이나시가 공동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의 (주)이나시관광을 설립	
마하라이나하비루온천	1994년	천연온천	행신제학	(주)이나시관광	• 온천권의 1/3을 이나시가 매취하는 형식으로 출자	
미하라시 탕	1997년	온천시설	이나시	(주)이나시관광	• 1998년에 '미하라시 온천'과 이나시가 공동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의 (주)이나시관광을 설립	
미하라시 딸기농원	1997년	딸기수확체험	하비루 딸기생산조합	하비루 딸기생산조합 (생산자 7인)	• 개장 시기: 1월 1일 ~ 6월 하순	
도레다테 시장	1998년	지역농산물직판	이나시	JA이나	• 2001년 '일본농업대상' 수상	
농산물가공장		JA이나	쌀가공	서산료미가공그룹(하비루 농산물직판소이용조합)		
			청과물가공	하비루채소생산가공조합		
			대두가공	서산료미대두가공조합		
팜레스토랑	1999년	지역농특산물 요리 제공	이나시	JA이나 (사무위탁: (주)란도상사)	• 소바명인협회는 임의단체이며, 경영을 위탁받음. 이후 유하회사로 발전하여 2005년부터는 지정관리자로 지정되어 운영 중	
소바의 집, 명인정		소바 시식, 소바만들기체험		이나시 수타소바명인협회 (2003년 유한회사 설립)		
수제빵공방		빵만들기체험		이나시 수제빵동호회 대표		• 수제빵동호회는 임의단체이며, 경영을 위탁받음. 2005년, 지정관리자로 지정됨.
대나무의 집, 공방Coo		수공예체험		개인		• 개인에게 위탁
이나향직, 초목 공방, 풀의 집		직조 체험, 풀공예 체험		이나시향직보존회		• 공민관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진행
후레이농원		시민농원 (1구획 32㎡)		공원사무소(이나시 관리)		• 향직보존회는 임의단체이며, 경영을 위탁받음. • 공민관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진행

목마장	2000년	승마체험		이나시	이나승마그룹	임의단체인 이나승마그룹에 경영을 위탁. 2005년, 지정관리자로 지정.
		타조사육	농업공원관리조합운영회의			
		애완견운동공원	공원사무소(이나시 관리)			
도그런(Dog-run)	2000년	사과수확체험		사과생산자	4인	- 무료 - 개장시기: 8월 하순 ~ 11월 하순
미하라시 사과원	2001년	블루베리수확체험		미하라시 블루베리 생산조합		개장시기: 7월 상순 ~ 8월 중순
미하라시 블루베리원	2002년	스위트콘수확체험		미하라시 스위트콘 생산조합		개장시기: 7월 상순 ~ 8월 중순
미하라시 스위트콘원	2004년	포도수확체험		미하라시 포도 생산조합		개장시기: 9월 상순 ~ 10월 하순
미하라시 포도원	2006년	아스파라거스수확체험		미하라시 아스파라거스 생산조합		개장시기: 4월 중순 ~ 7월 중순